

인천의 수출현황과 정책과제

김동관(dongk29@itp.or.kr)

전략정책TF 전임연구원

I 배경 및 목적

- 자유무역 경쟁 시대 세계 주요국은 자국의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6년 연속 수출이 증가해 온 인천시도 수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에 소재한 수출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발전하기에는 해외시장의 급격한 변화,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상황
- 이러한 무역 환경하에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하여 인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
- 본 보고서는 인천시 수출현황에 관한 통계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현재 지원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에서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코자 함.

II 대외 수출환경의 변화 및 한국의 수출입 현황

□ 수출환경의 변화

- 저성장 기조로 인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의 기조가 강화¹⁾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은 저성장 기조로 전환되면서 각국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는 통상정책을 추진
 - 선진국들은 저성장세를 벗어나기 위해 기존산업의 구조조정, 신산업 발굴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보다는 비관세장벽 신설, 반덤핑 등 자국 보호주의 무역정책을 추진
 - 보호무역주의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적용될 가능성이 큼.
- 4차 산업혁명 이슈에 따른 수출기업 활동의 근본적인 변화 요구²⁾
 - 4차 산업혁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출영역은 관련 기술이 적용된 제품 혹은 서비스, 수출 관련 부가활동의 변화를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활용, 온라인 수출 등이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IT나 반도체 업계는 수출환경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기존 자동차, 조선, 로봇, 일반 기계 등의 기업들도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을 위해 빅데이터와 모바일 등의 기술을 적용 중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 글로벌 B2C 및 B2B 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 중이며 국내 온라인 수출은 '16년부터 수입을 앞지르기 시작³⁾
 - 온라인 판매는 현지에 진출하지 않고 적은 리스크로 영역 확장이 가능하고 SNS, IT 기술을 활용하는 구조로 인하여 청년 친화적이며 창업 수출이 용이
 - 또한, 앞으로 온라인 거래가 성숙해질수록 다양한 기술이 수출환경에 적용되면서 오프라인 수출거래가 온라인 수출로 대체될 가능성이 큼.⁴⁾

1) 최환석, 배정미, 2017

2) 이영주 외, 2017

3) (중소기업벤처부, 2019)B2C : '18년 2.9조\$ → '22년 5.9조\$, B2B : ('16) 7.3조\$, ('17) 7.7조\$, ('18) 10.6조\$
수출(억원) : ('15) 12,599 → ('16) 22,934 → ('17) 29,509 → ('18) 35,777,
수입(억원) : ('15) 17,014 → ('16) 19,079 → ('17) 22,436 → ('18) 29,248

4) USITC, 2017

□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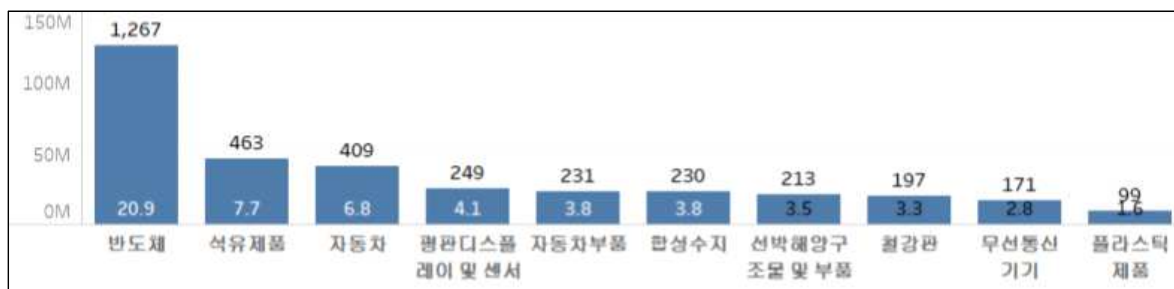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1>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2000~2018)

-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지속해서 무역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8년은 무역액 규모 사상 최대(1조 1401억 달러) 달성
- 2018년에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최단기·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⁵⁾
-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달성(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하였고 수출 규모로는 세계 6위를 수성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2>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2018)

5) 무역 1조 달러 달성 국가는 한국 포함 10개국, 최근 10년간 무역흑자를 기록함과 동시에 무역 1조 달러 달성국은 4개국(한국, 중국, 독일, 네덜란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1. 1.)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반도체는 2018년 연간 최대 수출을 기록하며 세계에서 6번째로 단일품목으로 1,000억 달러를 수출을 달성⁶⁾

<표 1> 우리나라 주요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17년		'18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중국	142,120	14.2	162,236	14.2
아세안	95,248	27.8	100,281	5.3
미국	68,610	3.2	72,750	6
EU	54,038	15.9	57,669	6.7
베트남	47,754	46.3	48,632	1.8
중남미	28,095	10.4	27,797	△1.1
일본	26,816	10.1	30,625	14.2
중동	24,380	△7.0	21,636	△11.3
인도	15,056	29.8	15,615	3.7
CIS	9,208	33.7	10,834	17.7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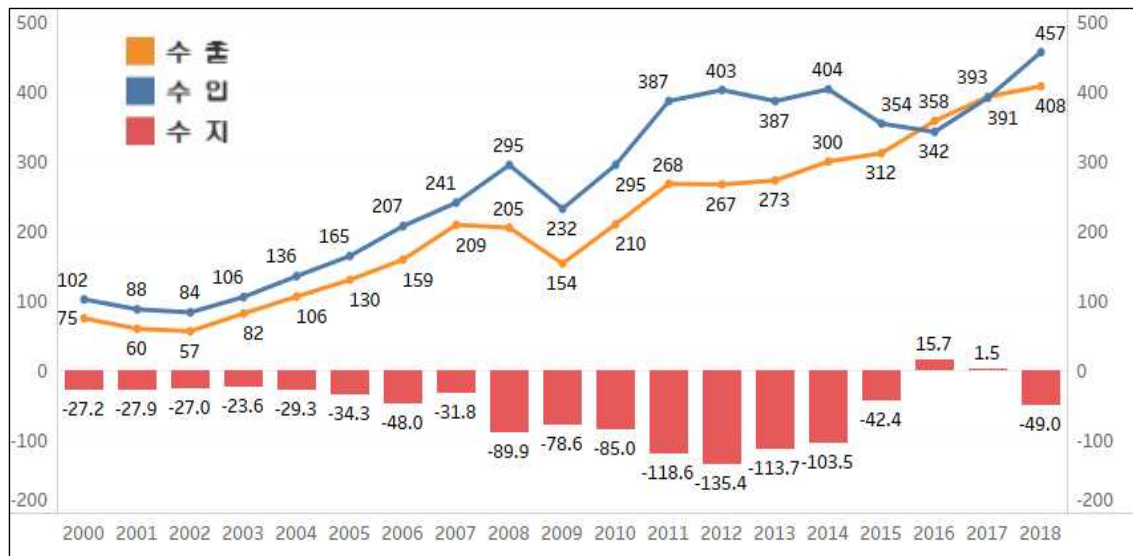
- 중동·중남미를 제외한 쏘 지역 수출 증가, 중국·일본·CIS 등 3개 지역 두 자릿 수 증가
 - 우리의 주요 수출입 상대국들은 미국, 일본, EU 및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53% 이상을 차지
 - 신 남방 시장인 아세안, 베트남, 인도는 반도체, 석유제품, 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제품의 호조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
 - CIS를 대상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 일반기계, 현지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수출
- 우리나라의 수출품목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품과 주력 수출국 역시 다변화하고 있음.
 - 국내의 대기업 수출입의 증가와 함께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입에서 지속해서 비중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수출입에서 기존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중국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변화는 국내의 수출구조를 전실하게 함.

6) 연간 1,000억 달러 수출품목, 달성 시점 : ①獨 자동차('04), ②日 자동차('07), ③中 컴퓨터('08), ④中 유무선('10), ⑤美 항공기('13), ⑥韓 반도체('18)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19. 1. 1.)

III 인천지역 수출의 실태 및 특징

□ 인천지역의 수출현황

단위 : 억 달러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3> 인천의 수출입 현황(2000~2018)

- 인천의 무역 규모는 2000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나 무역수지는 2016년과 2017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
- 2018년에는 인천 수출 사상 최초로 400억 달러 돌파라는 기록을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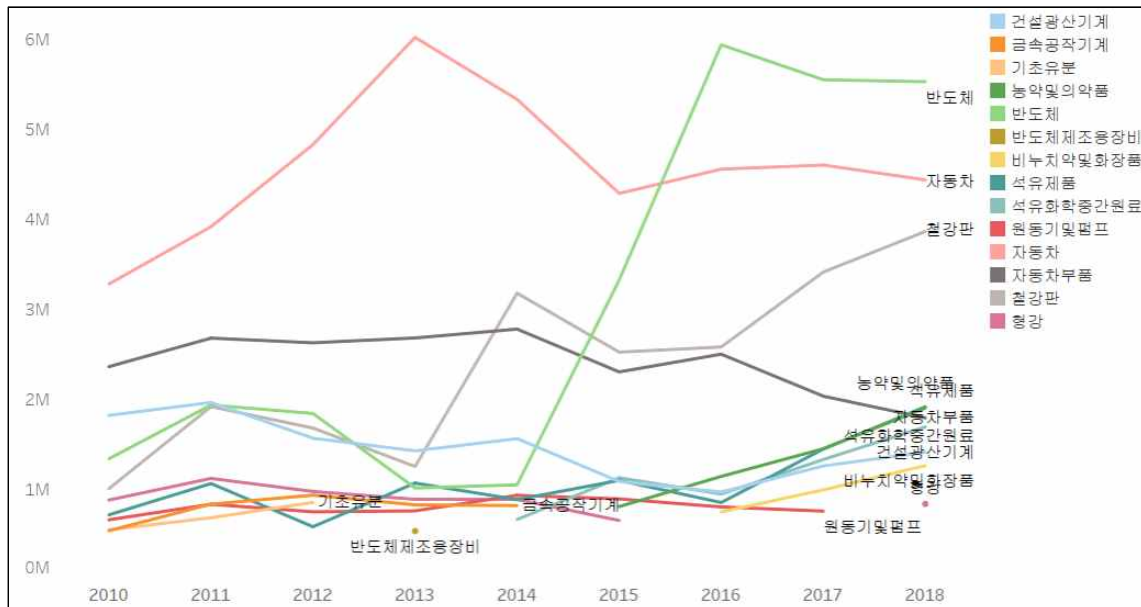
<표 2> 지자체별 수출현황(2018)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지역명	금액	증감률	비중	순위	지역명	금액	증감률	비중
1	경기	143,343	15.5	23.7	10	광주	14,665	-1.9	2.4
2	충남	92,002	15.2	15.2	11	부산	14,410	-4.3	2.4
3	울산	70,319	5.4	11.6	12	대구	8,102	12.3	1.3
4	서울	64,642	12.6	10.7	13	전북	7,831	24.1	1.3
5	경북	40,911	-8.8	6.8	14	대전	4,515	1.4	0.7
6	인천	40,802	3.9	6.7	15	강원	2,097	17.6	0.3
7	경남	40,260	-32.3	6.7	16	세종	1,230	20	0.2
8	전남	36,624	17.9	6.1	17	제주	182	17.4	0
9	충북	23,235	16.2	3.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인천의 수출 규모는 전국 6위로 작년보다 3.9% 증가하였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6년 연속 수출성장률 기록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4> 인천 주요 수출품목 변화(2018)

- 인천시의 품목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자본 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형태를 지님.
- 2010년에는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을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반도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도체의 경우, 싱가포르,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
- 자동차의 경우 인천의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수출품목으로 2013년에 가장 높은 수출액을 달성하고 이후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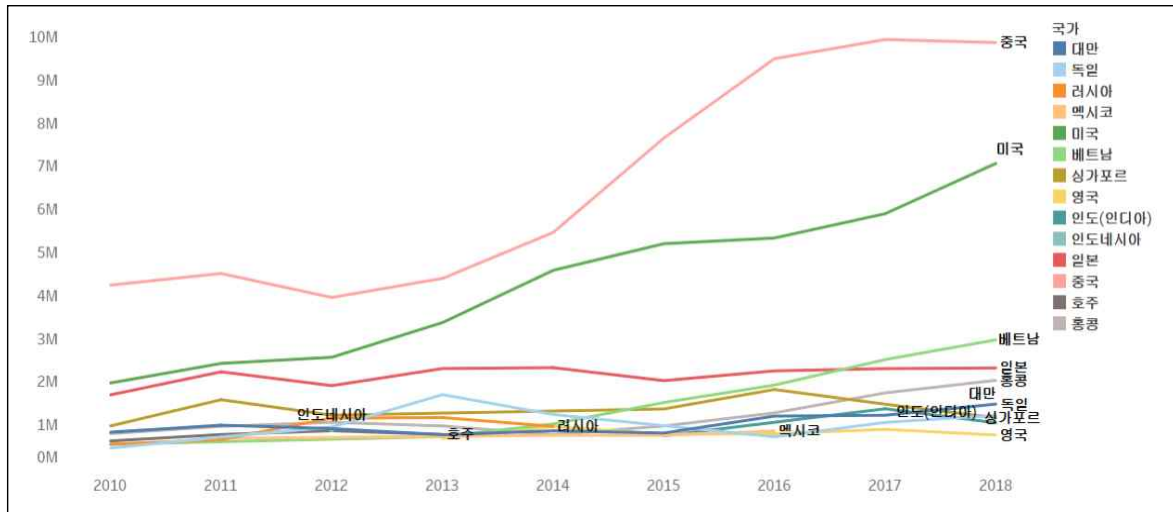
<표 3> 인천 품목별 수출액(2018)

(단위: 백만불, 전년동기비)

구 분	반도체	자동차	철강판	석유제품	농약 및 의약품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건설광산 기계	비누 및 화장품
수출액	5,534	4,443	3,872	1,936	1,906	1,795	1,695	1,416	1,266
증감률	-0.4%	-3.6%	13.3%	33.6%	31.2%	-11.9%	27.2%	12.2%	27.2%
비 중	13.6%	10.9%	9.5%	4.7%	4.7%	4.4%	4.2%	3.5%	3.1%

* 주요수출 기업 : 반도체(스타츠칩팩코리아), 자동차(한국GM), 철강판(현대제철), 의약품(셀트리온, 삼성바이오)

자료 : 인천시 보도자료(19.1.2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5> 인천의 국가별 수출 변화((2000~2018))

- 인천시의 국가별 수출시장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순으로 나타남.
- 과거부터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비중은 2014년부터 증가추세에 있음.
- 일본, 홍콩, 대만, 독일, 싱가포르 등의 수출액에서는 연도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인천기업의 수출현황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그림 6> 인천기업별 수출 변화((2000~2018))

- 기업 규모별 인천시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견기업의 경우 2014년 이후 중소기업의 수출액을 넘기면서 중소기업보다 높은 수출액을 보임.

<표 4> 전국과 인천의 기업 규모별 수출 비중

구분	지역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인천	63.1%	61.3%	66.4%	65.5%	55.6%	52.3%	42.1%	61.0%	59.2%
	전국	65.1%	66.8%	67.8%	67.0%	66.1%	63.9%	62.2%	65.5%	68.1%
중견기업	인천	10.9%	15.1%	12.1%	13.7%	22.3%	33.0%	36.2%	25.8%	25.2%
	전국	13.4%	14.8%	13.3%	15.8%	15.7%	17.6%	17.5%	15.9%	13.7%
중소기업	인천	25.9%	23.5%	21.5%	20.8%	22.0%	14.8%	21.7%	13.2%	15.6%
	전국	21.2%	18.3%	18.8%	17.1%	18.0%	18.3%	20.1%	18.5%	18.0%
기 타	인천	0.1%	0.0%	0.0%	0.0%	0.1%	0.0%	0.0%	0.0%	0.0%
	전국	0.4%	0.1%	0.1%	0.2%	0.2%	0.2%	0.2%	0.2%	0.2%

자료 : 통계청, 중소중견기업 수출통계

- 규모별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 인천의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 이하의 비중을 보임.
-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0년부터 50~60억 불의 수출액을 보여 수출 규모의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임.
- 전국과 비교하였을 때 인천은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전국은 13.7%인데 반하여 인천은 25.2%의 수치를 보임.

<표 5> 인천의 규모별 수출액 평균

(단위: 백만 달러,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기업	수출액 평균	477.05	448.91	578.09	573.67	530.66	672.39
	업체 수	40	35	34	33	38	31
중견기업	수출액 평균	51.28	77.03	116.97	108.15	109.42	114.69
	업체 수	74	80	106	95	103	103
중소기업	수출액 평균	0.96	0.99	0.86	0.93	0.88	0.90
	업체 수	6,321	6,288	6,467	6,620	6,608	6,707
기타	수출액 평균	5.69	5.33	0.78	0.79	0.72	0.88
	업체 수	35	30	18	14	18	16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8년 기준 326.5억 달러로 이는 인천지역 수출액의 84.4%에 해당하는 비중임.
- 중소기업 수출에 문제점은 기업 수의 증가에 비하여 수출의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임.
 -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수출액이 백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처럼 인천의 기업 규모별 수출은 양극화가 심하고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가 작으며 수출의 증가율도 그리 높지 않음 상황

<표 6> 인천의 규모별 수출현황

	2012	2013	2014	2015	2016
4백만불 미만	6,118	6,443	6,348	6,504	6,638
4백만불~1천만불	238	214	226	230	203
1천만불~2천만불	89	94	103	88	87
2천만불~5천만불	49	50	38	39	47
5천만불~1억불	14	21	21	21	16
1억불 초과	22	22	29	26	28

자료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인천의 수출기업의 수는 7천여 개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94.5%에 해당하는 기업(6,638개사)은 연간 수출 규모가 4백만 불 이하(2016년 기준)
- 이러한 구조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수출시장에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 인천시 수출지원제도는 5개의 지원사업(세부사업 기준 33개), 3백만원의 지원 예산으로 운영
- 수출지원제도의 기본체제는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시는 인천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상공회의소,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중앙회의 각 인천지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 수출지원방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지원방식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음.

<표 7>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사업명	건수	배정예산(백만원)			지원규모(개사)		
		'18	'19	증감	'18	'19	증감
해외 판로개척	9	1,430	1,430	-	448	450	2
수출 인프라 구축	10	743	768	25	549	446	-103
FTA 활용	1	70	70	-	950	950	
글로벌 강소기업	1	310	410	100	15	15	
중국 전담 마케팅	12	1,000	900	-100	329	338	9
계	33	3,553	3,578	25	2,291	2,199	-92

자료 : 인천시 중소기업 수출지원계획(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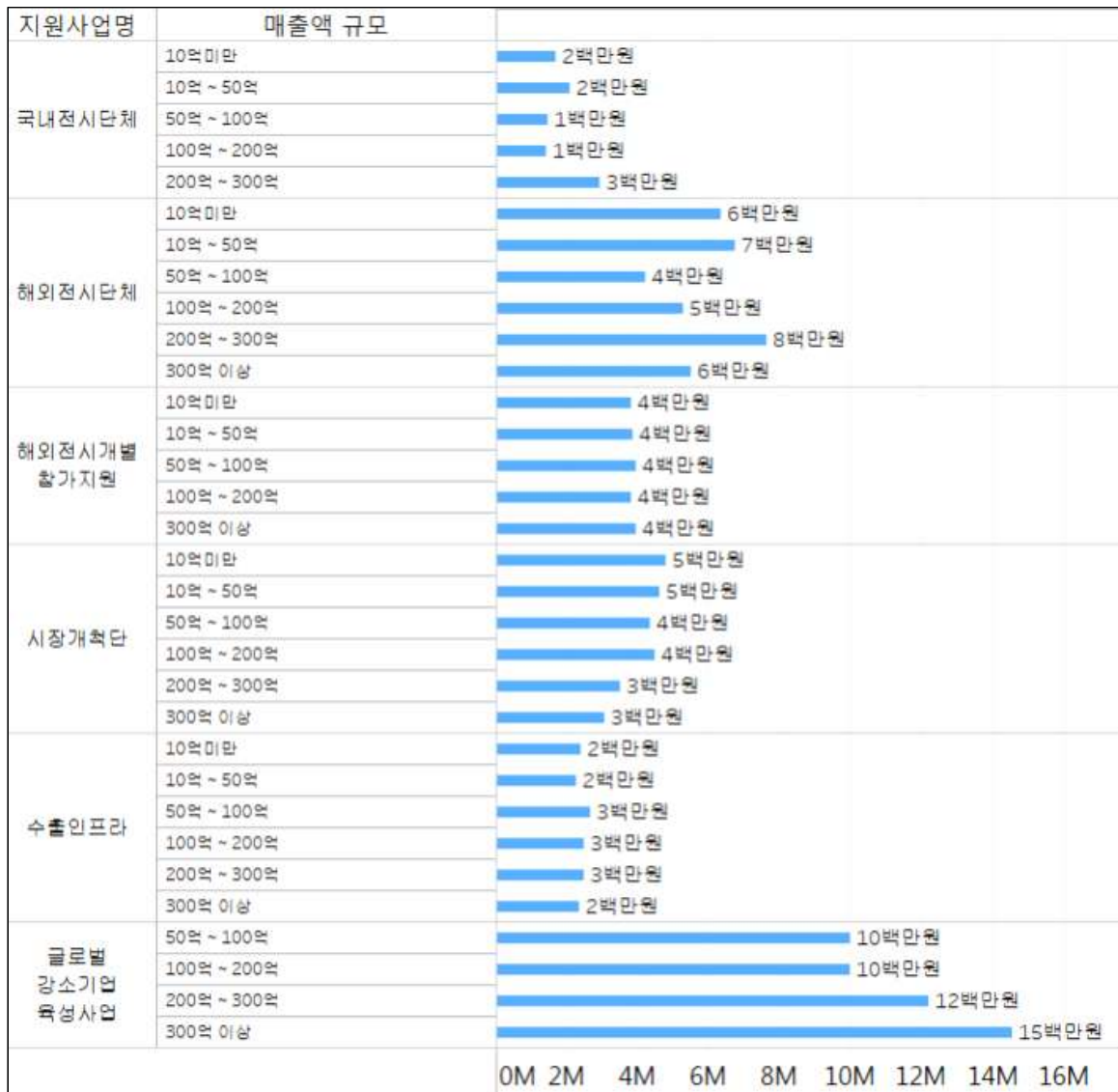
- 인천시의 수출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기능별 지원체제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수출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이나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기능별 기준으로 수출지원사업을 구분해보면, 판로개척, 전시회참가,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표 8> 인천시 수출지원사업 수혜기업 수

지원내용	10억 미만	10~50억	50~100억	100~200억	200~300억	300억 이상
국내전시 단체참가	16	37	7	4	1	
해외전시 단체참가	43	29	24	10	6	3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31	12	25	13		5
시장개척단	71	36	23	20	6	10
수출인프라	28	17	21	9	2	3
글로벌 강소기업			1	2	6	11
합계	189	131	101	58	21	32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모니터링 조사자료(2017년 기준)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의 수혜는 대부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음.
- 매출액 10억 미만의 기업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매출액 규모가 증가할수록 수혜기업의 수는 감소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지원모니터링 조사자료(2017년 기준)

<그림 7> 수출지원사업별 평균 지원금액

- 사업별로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이 기업당 지원금액이 가장 크며 국내 전시단체참가가 금액이 가장 적음.
- 위의 결과와 연계하여 살펴보면 현재 인천시 사업은 규모적인 측면에서 기업당 100만원~1,500만원 사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사업의 79.1%가 매출액 100억 미만 기업에 지원되고 있음.

□ 수출환경 분석에 의한 시사점

- 수출과 관련된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 이슈,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등 수출과 관련된 대외적인 환경이 기존과는 다르게 급격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 이러한 변화는 개별 수출중소기업이 아닌 수출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정도의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 대비한 인천시의 독자적인 정책발굴이 필요
-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 감소 및 영세성
 - 인천의 수출중소기업은 전반적으로 영세할 뿐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과 양극화된 모습을 보여 수출구조가 불안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
 - 인천시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2010년 이후 정체가 지속되면서 규모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출기업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1기업당 수출액의 규모는 증가하지 않음.
 - 이러한 결과는 변동성이 높아지는 수출시장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출기업의 역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 수출기업의 수가 증가하지만 그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개척을 위해 기업들이 노력은 하지만 사전준비 없이 나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출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존재
 - 이러한 점은 수출지원사업 수행 시 수출의 경쟁력과 구체적인 계획을 지닌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해야 함을 의미
- 특정 국가로의 집중
 - 인천시의 수출은 중국, 미국, 베트남 3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과거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미국의 수출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베트남의 비중이 증가
 - 특정 국가에의 수출 집중화는 대외적인 환경변화 때문에 급격하게 수출이 중단되어 지역경제에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인천 중소기업의 선진국 수출 비중은 미국을 제외하고 점차 낮아

지고 있어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선진국시장의 수출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

- 그러므로 다변화된 수출 판로개척과 선진국 수출시장의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력 강화와 핵심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함.

○ 획일화된 수출지원제도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은 중앙정부, 지자체, 협회 등이 각각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사중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음.
- 또한, 지자체의 예산외에 중앙정부 수출지원사업의 형태를 모방하여 사업을 구성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수출 중소기업에 혼란을 야기
- 그리하여 수요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담기관을 활용하여 모든 수출 관련 업무를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려는 경향이 있음.
- 수출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수출중소기업에 의한 지원사업 접근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자원의 낭비라는 관점이 존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소액 보조금 방식의 수출지원으로 인한 낮은 성장 효과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의 지원 효과가 낮은 이유는 운영 측면보다는 수출지원사업의 구조적인 측면에 기인함.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 방식이 대부분으로 이러한 방식은 예산의 집행 및 관리가 쉽지만 수출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는 부족한게 현실
- 수출지원사업이 1,000만원 이내의 소액 보조금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단순히 수출 애로를 해결하거나 수출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한 비용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짐.
-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수출실적을 지닌 기업의 지원보다는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한정되어 지원사업이 수출성과를 견인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따라서 인천시 수출지원 프로그램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보다는 역량 배양에 초점을 맞춘 지원내용을 일부 강화할 필요가 있음.

IV 인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1. 수출 유망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단계별 수출지원제도 구축

□ 필요성

-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은 기능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외형적으로 수출과정에서 필요한 전시회 참가, 판로, 네트워크 등 기능이나 자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그러나 기능별 지원책은 기존 사업을 단순히 재분류한 것에 가깝고 실질적인 역량별, 단계별 지원체제 구축에는 미흡
- 수출초보기업에게는 수출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글로벌 활동 중심 중소기업들에게는 자발적인 수출시장을 개척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

□ 추진과제

- **(단계별 맞춤 체제 구축)** 단계별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지원대상의 실제적인 수출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대상 선정기준 마련
 - 수출실적, 시장성, 경쟁력 등 종합적인 지표 구축을 통하여 단계별 맞춤형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방안을 추진
 - 단계별 지원을 통해 성과를 일부 거둔 기업에는 다음 단계 지원을 연계하여 수출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
- **(수출 준비단계 기업 학습지원)**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에는 수출 관련 기본교육, 컨설팅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학습 의지와 성과를 토대로 후속 지원을 연동
 - 수출초보기업지원은 최대한 많은 기업에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
- **(수출 유망기업 패키지지원)** 일정 수준 수출 관련 경험이 있는 기업에는 목표시장 공략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 목표시장 공략을 위해 일회성 지원 아닌 패키지 형태의 지원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레벨을 갖춘 기업에는 현지 투자에 필요한 자금 등을 대규모로 지원

2.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전략 추진

□ 필요성

- 인천시의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로 집중되어 있으며 선진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고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비중이 높은 편
- 인천지역의 수출품의 다변화는 지역의 수출구조를 견실하게 함에 따라 잠재적인 성장력이 큰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 신규수출국의 적극적인 개발에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신규수출국에 대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시장개척,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

□ 추진과제

-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마케팅 전략 추진)** 해외 동반진출이란 해외 또는 해외 진출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공동 마케팅, 프로젝트 공동 수주 수행, 또는 공동 투자진출 등의 협력활동⁷⁾
 -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출제품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업종, 수출국 등을 고려하여 주요 수출시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의 이미지가 결합된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
 - 희망 수출국 및 전략적 수출제품 등에 대해서 지역 내 산학연 및 관련 단체 조합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내 기업들이 개별적인 수출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 보다는 협력하여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해외 거점 수출사무소 구축)** 전략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지역을 선정하여 현지전문가를 파견하고 해당 지역의 해외진출 종합 플랫폼 운영
 - 해당 지역에서는 정기적으로 각종 무역전시회, 상담회 개최 등 수출촉진 행사를 실시하여 현지에서의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지명도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 추진
 - 수출사무소에서는 해외 바이어에 관한 정보, 수출국의 산업정보, 법률, 등 종합적인 수출정보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

7) kotra, 2011

- (신규 진출국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과 투자 등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원사업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 추진
 - 신규 진출국에 대한 정보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개별 기업의 수출활동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에는 미흡한 실정
 - 인천시에서 전략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신규 수출국에 대해 해당 기업들의 수요를 수집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 (수출연계 R&D 지원추진)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글로벌 잠재 수요 발굴 및 제품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 제품개발단계에서부터 사전적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완성된 제품이 수출상품화로 이룰 수 있도록 추진
 -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토록 독려

3. 수출지원사업의 업그레이드

□ 필요성

- 현재 인천시의 수출지원사업은 사업목적의 구체성이 미흡하고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을 관성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존재
- 특히 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의 경우 참여업체의 모집이 쉽지 않아 해당 사업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준비가 되지 않는 기업이 참가하는 경우가 발생
- 또한 대외적인 수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출지원사업이 필요한 시점임.
-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지원대상 설정과 지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현재 수행중인 수출지원사업을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존재

□ 추진과제

- (수출지원사업의 관리 일원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추진
 - 2019년 기준 인천시 수출지원사업은 10개사업의 33개의 세부 사업으로

- 구성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세부적인 과제가 존재
- 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각 세부과제별 사업계획과 결과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여 행정력의 낭비와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유사한 유형의 수출지원사업은 하나로 일원화 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토록 추진
- **(수출 지원기업의 선정절차 강화)**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시장개척단 등 수출중소기업의 시장개척활동이라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사업의 추진내용과 방식을 개편
- 해당전시회 및 시장개척에 참여하는 기업에 사전준비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당 단계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2단계로 사업 추진방식을 개편
 - 해당 사업을 통해 축소된 부분은 지원 효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전환되도록 유도
- **(사업의 사후관리)**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하여 평가결과 효율성 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실시
- 사업평가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외부전문가 등을 구성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
 - 평가결과 추진절차나 해당 성과가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사업으로 전환

□ 참고문헌

USITC(2017), Digital Globaliz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8년(연간, 12월) 수출입 동향

이영주, 조운애, 신종원, 한창용(2017),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지원
효율화 방안, 산업연구원

인천광역시 (2019), 2018년도 인천 수출 동향전망

인천테크노파크(2017), 기업지원모니터링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2019), 중소기업 중장기 수출 해외진출지원대책

최환석, 배정미(2017),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및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기업포커스

코트라(2011),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확대방안 연구

□ 사이트

통계청 : kostat.go.kr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통계서비스 : <http://www.trass.or.kr>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http://stat.kita.net/main.screen>

- '인천 산업기술 · 중소기업 REPORT'는 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정책과 이슈, 테크노파크의 사업과 보고서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 본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인천테크노파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